

국내 임플란트 식별 및 시스템 간 호환성에 관한 고찰

박 정 현 / 보아치과의원

오늘날 임플란트 시술은 더 이상 특수한 치료가 아닌, 레진 충전이나 인레이 보철처럼 치과 진료실에서 수행되는 보편적인 일상 진료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과거 타 의료기관에서 식립한 임플란트에 불편감을 느껴 내원하는 신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는 시술을 진행한 본래의 치과로 회송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환자의 거주지 이전이나 해당 의료기관의 폐업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새로운 주치의가 기존 보철물의 유지관리 및 재치료를 전담해야 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임플란트 제조사들은 전략적 필요에 따라 타사 제품과의 호환성 여부를 결정하며, 현재 국내에만 약 100여 개의 제조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단일 제조사 내에서도 기술적 업데이트에 따라 픽스처(Fixture) 디자인이 수시로 변형되며, 심지어 동일 브랜드 내에서도 구형과 신형 제품 간의 호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한다. 임상가가 모든 임플란트 시스템의 규격을 숙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에, 환자가 식립한 제품을 정확히 식별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보철적 합병증 발생 시 인상용 시대주(Impression coping) 등 필수 부품을 공급하지 못해 적절한 진료를 시행하지 못하는 임상적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임상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는 2018년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찾아주기 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 숙련된 교수진과 임상가들이 집단 지성을 통해 식별을 돕고 있으나, 시스템의 파편화가 심화됨에 따라 여전히 미확인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환자의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식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고에서는 임플란트 호환성 문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임상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전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학력 및 경력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석사, 박사 수료
- * 현, 대한치주과학회 이사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이사
보아치과 원장